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로 알려주세요.



'마음자리' 를 깨우치자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LA생명의전화

창립 20주년을 맞은 LA생명의 전화(원장 박다윗 목사)가 지난 16일 LA 중앙루터교회(담임목사 홍영환)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박다윗 목사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섞여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 절망에 빠져있는 한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노라 열악한 상담실 환경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상담봉사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LA생명의 전화 측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생명의전화를 통해 각종 상담을 받은 한인은 5만3천7백32명에 달한다.

LA생명의 전화 상담시간은 매일 오후 3시-이튿날 새벽 5시까지(연중무휴)이다.

▶ 상담전화: (213)480-0691
(866)365-0691, (213)383-0691

선교기금 모금탁구대회 갈보리선교교회

갈보리선교교회(담임목사 심상은,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가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남가주 교회 및 단체 친선 탁구대회'를 연다. 이 행사는 7일 오전 9시부터 부에나파크 주니어하이스쿨 강당(69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열린다.

경기종목은 ●교회, 클럽팀 단체전(4단1복) ●남녀 통합 개인전 및 시니어 복식이다. 1, 2, 3위는 시상하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 문의: (714) 388-2168, (714) 366-1148

정말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은 무소득(無所得)의 경지라면 불쌍한 중생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나' 를 위해서는 할 일이 없지만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할 일이 많고 잠도 자지 않는 자비심이 있게 됩니다.

오직 남을 위해 주는 '자비심', 어두움이 없는 '밝은 지혜', 중생들을 모두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내고야 말겠다는 '위대한 원력', 이것이 '깨달은 이' 의 마음이고, 불보살의 마음이며, 무소득의 경지입니다. 중생들의 괴로움은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어야겠다, 재산을 모아야겠다, 미인을 얻어야겠다, 권력을 얻어야겠다.” 하는 욕망이 일체고 (一切苦)를 가져옵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석을 한 개 선사 받았다고 하면,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잡니다. 도둑이 언제 담을 뛰어 넘어 올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택시를 타고 가도 안심 이 안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안심 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마음에 소득이 있으면

안심이 안됩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미인과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미남자와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하고 좋아하는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가 싶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소득에 관심이 없으면 잠이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항상 편안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도 구애될 것이 없고,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득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생사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지 진실로 부처가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부처도 열반도 구하지 않는 무소득의 '마음자리' 를 찾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마음' 은 본래 구애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거리낄 것이 없는 진공과 같은 '마음', 불법을 닦아야 할 필요도 없고, 망상이 없으니 망상을 떼어내 버릴 일도 없고, 아무 데도 걸릴 데가 없습니다. 지구만한

보석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내 '마음' 이 걸리고 거북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을 이끌어 얽매는 것이 재물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큰 돈을 벌면 '마음' 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이 이런 줄 아는 사람은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귀를 찢게 됩니다. 세계를 다 차지해서 그 번뇌 덩어리를 맡아 잠 못 자고 '마음' 만 흔들리는 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미인을 몽땅 데려다 준다고 해도 그것이 다 귀찮고, 미인이면 미인이지 육체가 아닌 '나' 에게 무슨 상관이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계행을 지키고 정진(精進)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야' 의 '마음자리' 를 깨치면 하지도 않고 안하지도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고 나면 하면서도 안하는게 되고 안하면서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청담 스님-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 JOHN 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714.670.9687